개원의를 위한 상속증여 절세전략

박 상 호 / 세무법인 택스홈앤아웃

1. 개원 초기 현금 증여, 부동산 증여의 프로세스와 유의점

개원초기 통상 임차보증금 지급, 인테리어, 의료기기 구입 등으로 상당한 자금을 소요하게 됩니다. 이 경우 자기자금, 대출 등 자금마련 방안이 중요한데 부모님 등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개원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병의원용 상가를 취득하기 위하여 취득자금을 증여받거나 상가 부동산을 직접 증여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상당한 증여세 및 취득세 등을 부담해야 합니다.
증여세의 신고와 세금 납부시 납부세액 준비가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절차와 유의점을 안내합니다.

2. 개원도중 고가의 부동산 취득시 유의해야 할 취득자금출처

고가의 아파트나 상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 자금출처를 어떻게 마련할지 준비가 필요하며 만일의 경우 국세청에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에게 받은 것은 없는지,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취득시 배우자증여가 없었는지, 누락된 병원 사업소득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아닌지 개원의의 입장에서 국세청은 항시 예의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자금출처 마련 준비 및 소명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사전증여가 유리한지 상속이 유리한지

상속세와 증여세는 최고 50%의 세율을 부과하므로 상속인과 수증인에게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특히 상속증여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현금으로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장단기 계획을 가지고 준비해야 합니다.
상속보다는 사전증여가 유리할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증여와 상속의 관계에 대하여 알아보고 상속이후 상속세 산출과정을 살펴봄에 따라 사전에 장단기간 준비할 사안은 없는지, 상속과 관련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과정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학력 및 경력
*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졸업
*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경제학 석사
* 39회 세무사고시 합격
* 전, 세무법인 진명 근무
* 하나은행 WM 본부 세무자문
* 하나은행 PB 본부 세무자문
* KB생명 세무자문
* KDB생명 세무자문
* 컨설팅사업부 본부장
* 경문고등학교 감사
* 현, 세무법인 택스홈앤아웃 PARTNER (상무이사)